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
	배포 일시	2014. 4. 2(수) 총 11매(본문 3, 붙임 8)	
담당 부서	해외건설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양종호, 주무관 최필성 • ☎ (044)201-3516, 3517, 3522
보 도 일 시		2014년 4월 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3(목) 10:00 이후 보도 가능	

해외건설, 양적성장과 질적 내실화 병행추진

- 「2014년 추진계획」... 14년도 해외건설 정책지원방안 확정 -
 - 사업 리스크관리, 우수중소업체 선정 등 질적성장 지원 등 -

- 국토교통부(장관: 서승환)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700억 불을 달성하는 등 우리기업 해외건설사업 수주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, 리스크 관리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의 질적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「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」*을 3월26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(위원장: 국토부 제1차관)에서 심의·의결하고 4월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.
- * 해외건설산업 발전 및 진출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부장관이 해외건설시장 동향·해외건설정책에 관한 업체의견을 조사하여 매년 수립
- 「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」에서는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, ②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 지원, ③ 중소·중견기업 진출 확대, ④ 진출 시장·공종 다변화,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올해 5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,
- 수주확대라는 양적 성장과 수익성을 높이는 산업의 질적 내실화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.

< 2014년도 해외건설정책 추진방향 >

- ◆ 14년 700억불 수주달성, 17년까지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
- ◆ 양적성장(수주확대)과 함께 질적성장(수익성제고) 병행

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	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활성화 지원 ② 중소·중견기업 이행성보증 지원 강화 ③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 강화 등
②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지원	④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지원 강화 ⑤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수주기회 확대 ⑥ 해외건설에 특화된 R&D 추진
③ 중소·중견기업 진출 확대	⑦ 독자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 확대 ⑧ 동반진출을 통한 역량부족 기업의 진출강화
④ 시장, 공중 다변화	⑨ 맞춤형 수주전략 및 진출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 ⑩ 파급효과 큰 메가복합 프로젝트·공중 진출 확대 ⑪ 건설 Eng 해외진출 활성화
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	⑫ 해외건설 Think-Tank 강화, 지원조직 연계 ⑬ 해외건설 상장 브랜드(슬로건) 홍보 강화 ⑭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(15~19년) 수립

【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】

-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(GIF)를 공공 주도펀드로 확대·개편하고, 중소·중견기업 이행성 보증을 위해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확대(정책금융→시중은행)한다.
- 아울러, 다자개발은행(MDB)과 협력강화를 위해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사업발굴을 강화하고, 해외 민간투자사업 협력포럼(14.9)도 개최한다.

【 ② 해외건설산업 수익성 제고 지원 】

- 해외건설기업의 사업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지역별 진출전략과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정부간 개발협력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강화하고, 고위급 초청연수도 확대하며 해외건설 맞춤형 R&D도 추진한다.

* 마스터플랜수립 지원('13:31억원⇒'14:50억원), 고위급 연수('13:70명⇒'14:100명)

【 ③ 중소·중견기업 진출 확대 】

- 독자적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정보·금융·외교력을 집중지원*한다.

* 시장개척자금 지원, 맞춤형 수주지원, 해외건설브랜드 홍보, 보증한도 확대 협의 등

- 아울러, 진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대기업 동반진출, 인력양성과 현장훈련을 지원*하고, 해외건설 표준화도급 계약서도 도입한다.

* 외국어교육강화(영어과정 확대, 스페인·중국어 신설), 업체별 OJT확대(10→15명)

【 ④ 진출 시장·공종 다변화 】

- 주요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, 타겟형 수주 지원단 연중파견(8회)하는 등 외교적 지원은 강화하면서 진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자금 타당성조사 지원도 확대한다.

* 타당성조사 지원상향(건당 2억→3억 원), 수주성공시 환수금부담 경감(50→20%)

- 또한 전후방 연계·파급효과가 큰 도시, 국토정보, 공항, 도로, 수자원 분야 등 메가·복합 프로젝트 및 공종진출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.

【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】

-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('14.2월 개소, 해외건설협회)는 기존센터와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, 지난 8.28대책을 통해 마련된 해외건설·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 내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- 해외건설 상징브랜드를 발표하여 체계적 홍보를 지원하고, 중장기 해외건설 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(15~19년)도 준비한다.

※ 붙임. “2014년 해외건설 추진계획(요약본)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양종호 사무관(☎ 044-201-35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2014년 해외건설 추진계획

2014. 4. 3

국 토 교 통 부

순 서

I. 계획 개요	1
II. 2013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	1
III. 해외건설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	2
IV. 2014년도 중점추진 과제	3

I. 계획 개요

- 근거 :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(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)
- 목적 : 해외건설산업 발전과 진출촉진 정책방안 제시(1個年)
- 경과 : 관계부처 협의완료('14.3.12), 계획수립·발표('14.4.3)
 - *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의결(1차관 위원장, 3.26),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(4.3)

II. 2013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

- (추진실적) 중소기업 진출, 정책금융을 활용한 해외건설 활성화 등 대통령님 지시(13.4)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금융·정보·인력지원 기반마련
 - * 13년 해외건설 추진계획(4.25), 해외건설·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(8.28), 해외건설·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(기재부 1차관 주재) 구성·운영
-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*(총리 2회, 장·차관 6회)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, 대규모 발주처 초청행사(GICC, '13.11)도 적극 추진
 - * 쿠웨이트 정유공장(72억불), 카타르 도하메트로(21.7억불) 등 수주성파로 연결
- 개도국 수주기회 선점을 위해 도시·교통·수자원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(미얀마 등 3건)을 지원하고, 고위급 초청연수(70명)도 신규 추진

⇒ 이에 따라 '13년 역대 2위 규모인 해외건설 652억불 수주*로 누적 6천억불 수주를 달성하고, 세계 6위 해외건설 강국에 진입(ENR紙기준)

* 수주액 : ('09) 491억불, ('10) 716억불, ('11) 591억불, ('12) 649억불, ('13) 652억불

- (평가) 8.28대책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해외건설 수주는 양적 성장세
 - 다만, 여전히 중동·플랜트*·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, 중소기업 수주액**도 감소된 수준에서 정체
 - * (중동) 50%('11) → 57%('12) → 40%('13), (플랜트) 73%('11) → 61%('12) → 61%('13)
 - ** 중소기업수주액 : ('09) 55억불 → ('11) 48억불 → ('13) 35억불
 - 국내업체의 현장관리능력 미흡 및 업체간 과당 수주경쟁 등으로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수익성문제도 제기

Ⅲ. 해외건설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

1. 정책여건

□ (대외여건) '14년 세계건설시장은 10조불을 넘을 것(전년대비 9.1% 성장)으로 추정되며 '17년까지 연평균 8.5% 성장할 것으로 예상(Global Insight)

* 개방된 세계건설시장(Global Insight, 매출액, 백억\$): 73('13)→80('14)→88('15)

○ 중동지역에서 대형플랜트 발주*가 본격화되면서 수주는 증가될 전망이다이나, 중남미·아프리카에서 경쟁심화, 발주지연 등의 변수도 잠재

* (쿠웨이트) 신규 정유공장 140억불, (이라크) 주바이르 유전개발 23억불 등

□ (대내여건) 건설투자·수주 하락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

* 국내 건설투자·수주는 '08년이후 매년 감소추세, 특히 '14년 건설사들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집중(6.7조원)됨에 따라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실화 우려도 제기

2. 추진방향

◆ 14년 700억불 수주달성, 17년까지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

◆ 양적성장(수주확대)과 함께 질적성장(수익성제고) 병행

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	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활성화 지원 ② 중소·중견기업 이행성보증 지원 강화 ③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 강화 등
②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지원	④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지원 강화 ⑤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수주기회 확대 ⑥ 해외건설에 특화된 R&D 추진
③ 중소·중견기업 진출 확대	⑦ 독자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 확대 ⑧ 동반진출을 통한 역량부족 기업의 진출강화
④ 시장, 공중 다변화	⑨ 맞춤형 수주전략 및 진출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 ⑩ 파급효과 큰 메가복합 프로젝트·공중 진출 확대 ⑪ 건설 Eng 해외진출 활성화
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	⑫ 해외건설 Think-Tank 강화, 지원조직 연계 ⑬ 해외건설 상징 브랜드(슬로건) 홍보 ⑭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(15~19년) 수립

IV. 2014년도 중점 추진과제

1.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

-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(GIF)에 정책금융기관을 참여시켜 공공주도펀드로 확대·개편
 - * (그간 개편추진실적)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(8.28), 펀드 개편을 위한 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 MOU체결('13.12), GIF 1호펀드 운용사 선정('14.1)
- 사업발굴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지원(약 7건, 20억원) 하고, 발굴된 사업을 정책금융지원센터('14.1, 수은)와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민간투자자금을 활용한 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개발사업 투자펀드 설립근거(해촉법 개정, 금융위 협조)를 마련
- 중소·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지원을 위해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확대(정책금융→시중은행)하고,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확대(2천→2.4천억)
- 다자개발은행(MDB)과 협력강화를 위해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사업 발굴을 강화하고, 해외 민간투자사업 협력포럼 개최('14.9, 서울)
 - 카타르홀딩스, ADIC 등 중동국부펀드와도 공동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협력을 위한 상호 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
 - * 총리님의 제3국 공동진출 제안('13.8)에 따라 국조실에서 협력 방안 추진 중으로 MOU 체결 후 추진체계 일원화(국무조정실)를 통한 협력회의 지원
- 해외건설에 정책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정책금융지원센터 및 외화 온랜딩제도를 통해 맞춤형 원스톱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
 - 신흥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이행성 보증 확대를 위해 수은,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별 대출 및 보증도 강화

2. 해외건설 산업 수익성 제고 지원

- 해외건설기업의 사업 리스크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지역별 진출전략 및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제공(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)
 - 사업 공종별(플랜트·건축·토목·Eng)로 기업 스스로 사업리스크를 분석·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('14.12)
- 정부간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강화('14년 50억)하고, 고위급 초청연수도 확대(70→100명)
 - * 세계물포럼('15.4), 도로대회('15.11) 등을 활용, 개도국 공무원과 네트워크 강화
-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에 특화된 맞춤형 R&D 추진(14년 기반마련, 16~25년 본격추진)

3. 중소·중견기업 진출 확대

- 독자적인 진출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해 우수 해외건설업체를 선정('14.6)하여 정보·금융·외교력 집중 지원
 - * 시장개척자금·현장훈련(OJT) 지원, 맞춤형 수주지원단 파견 등
 - 해외현지 및 국내 전문컨설팅 서비스*를 강화하고, 해건협 해외 지부(7개국**) 공동근무를 통해 진출정보 및 노하우 집중 지원
 - * 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(해건협) : ('13) 59명 → ('14) 70명
 - ②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(LH) : 외국공무원 3명 상주(콜롬비아, 몽골, 미얀마 등)
 - ** 현재 7개소 운영 중 : 인니, 인도, 멕시코, 페루, UAE, 리비아, 카자흐스탄
- 독자적인 진출역량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은 대기업 동반진출, 인력양성 및 현장훈련 지원 등을 통해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
 - 상호협력평가를 통해 PQ 등에서 동반진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여 상생기반 마련(14.6)
 - * 공공기관과 동반진출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평가, 동반성장지수 반영도 검토

-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(13년 3.5천명 →14년 4천명)하고, **외국어 전문교육*** 및 **맞춤형 출장교육 실시**(300명)
 - * 영어전담과정 확대('13년 100명→ '14년 360명), 스페인·중국어과정 신규개설(50명)
- 중소기업 신규채용자에 대한 **해외현장훈련(OJT) 지속 추진**(300명)하고, 업체당 **최대지원인원을 확대**(10→15명)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
-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체계적·안정적 공급을 위한 **해외건설·플랜트 마이스터고**(서울도시과학고)의 2015년 차질없는 개교 준비
 - * 기숙사 설계(해건협),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및 교직원 워크숍 등 지원

4.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

- 이란·리비아 등 치열한 시장선점 경쟁이 예상되는 **주요국***에 대해 국가별 정세·제도·정책방향에 맞는 **맞춤형 진출전략**을 수립
 - * (아프리카) 리비아 (중동) 이란, 이라크, (아시아) 미얀마, 인도 (중남미) 콜롬비아
- 우리기업의 사업수주 및 애로해소를 위한 **타겟형 수주지원단을 연중파견**(8회)하고, '13년 세일즈 외교 대상국가 **후속조치*** 적극이행
 - * 중국(신도시), 러시아(철도), 카자흐스탄(EXPO 건설), 베트남(교통인프라, 플랜트), 브루나이(도로), 인니(교통인프라, 플랜트), 필리핀(수자원), 라오스(수자원) 등
- 진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**시장개척자금**(49억원) **타당성조사 지원액**을 **상향**(건당 2억→3억)하고, 수주 성공시 **환수금 부담 경감**(50→20%)
- 전후방 연계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**도시, 국토정보, 공항, 도로 분야** 등 **메가·복합 프로젝트** 및 **공중 진출 확대**도 적극 추진
 - (도시분야) 해외 도시개발 정보제공, 사업발굴,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**한국형 해외도시개발 모델 개발** 등 해외 진출 다변화 추진
 - (국토정보분야) **스마트 국토엑스포**(8.26~28, 서울)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, 공간정보 해외진출을 위한 **해외진출지원센터**(대한지적공사) **운영**

- (공항분야) 해외공항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특화 지원전략 마련 차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공항경쟁력 강화위원회(국토부, 공항공사 등) 운영
 - (도로분야) 국외 수주정보 지원 시스템(한국도로교통협회)을 구축하고, ITS 수출지원센터(ITS협회)를 통해 로드쇼, 초청연수 등 ITS산업 활성화 추진
 - (수자원분야) 제7차 세계물포럼(15.4) 준비회의 등에서 물관련 이슈를 주도하고, 국제협력·물산업협의회 등을 통해 해외진출로드맵도 마련
- 건설 Eng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술정보 DB*를 고도화하고, 해외건설ENG 인력양성 마스터플랜도 수립

* 사업절차·제도, 설계·공사기준 등 정보, 시방서 등 개도국 건설기준 분석

5.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

- 해외건설 Think-Tank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개소(14.2, 해건협)하고,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(LH) 등 기존센터와 유기적 연계
 - 해외건설·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('14.1, 수은)와도 정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각각 정책연구, 금융주선 기능으로 지원 특화
 - 해외개발금융포럼(국회)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 해외건설·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 내 협업강화
- 한류와 연계하여 한국 해외건설을 상징하는 브랜드(슬로진)를 마련하여 체계적 홍보지원 기반 구축
- 중장기적 해외건설 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('15~'19년)을 준비('14.5~, 연구용역 추진)